

도로·공원 등 계획시설 묶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광주·전남 여의도 땅 30배 육박

84㎢…공원 지정 가장 많아
사업 완수 예산 14조원 필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등 시설을 조성하겠다고며 계획시설로 지정 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땅이 여의도 면 적의 3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토지소유주들의 지정해제 신청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고민이 깊 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시·군 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면적은 광주 11.23㎢, 전남 73.63㎢였다. 광주·전남을 합친 면적은 84.86㎢로 여

의도(2.9㎢)의 29.3배에 달한다. 시설 용도 별로는 광주가 공원 7.93㎢, 도로 2.25㎢, 유원지 0.6㎢ 등이었다. 전남도 공원(34.5 ㎢), 도로(24.8㎢), 유원지(3.5㎢) 순으로 많았다. 자치단체들이 2000년대를 전후한 도시 팽창기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공원, 도로 등 구역을 설정했다가 재원 부족 등 으로 실제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해당 면적에 계획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는 광주 4조9000억 원, 전남 9조500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땅 주인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을 수립한 경우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없 어 지자체들이 일단 집행계획을 서둘러 수

립하고 있다.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보 성, 화순, 장흥, 영광 등 5개 시·군을 제외 한 17개 시·군이 집행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매년 예산이 부족한 이들 시·군이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 설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집행비율이 가장 높 은 곳은 무안군(97.1%)이며, 함평군(95. 7%), 곡성군(95.5%), 장성군(95.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낮은 곳은 목포시 로 59.2%에 불과하며, 광양시(64.9%), 순 천시·담양군(73.2%) 등은 80%를 넘지 못 했다. 전남도 전체 집행비율은 84.9%다.

전남도내 각 시·군은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896억원을 들여 27만8000㎡를 매 수하는데 그쳤다. /윤현석기자chadol@



트럼프 “러시아가 대선 해킹 배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러시아가 대선 해킹의 배후였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이같이 명확히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취약계층 빛 독촉 고통 덜어준다

채무자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30만~50만원 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빛으로 인한 악탈적 채권 추심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 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채무자들 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대부업체 등의 빛 독촉을 대신 대응해줄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 30~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빛 독 촉을 할 수 없게 돼 빛으로 고통 받는 서민 등 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전남 도는 전망했다.

또 파산·면책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자 부담으로 돼 있는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실질적으로

대신 납부해줄 방침이다.

신재춘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앞으로 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배려시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 겠다”며 “가계 부채와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도민은 주저 말고 전남도금융복지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동부와 서 부 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동부센 터(061-727-2590)는 순천 신대지구 전남 신용보증재단 3층에, 서부센터(061-285-3980)는 무안 남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에 위치해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문화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 ‘양림동산의 꿈’ 초대 이사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

“광주관광 1000만명 시대 첫 걸음”

광주에서 ‘꿈의 씨앗’을 뿌리는 단체 가 지난 9일 출범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 340여개, 시민 1720명이 창립회의로 참여하는 ‘(사)양림동산의 꿈’은 양림동, 광주천, 무등산,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을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묶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광주문화관광 벨트 조성 프로젝트로, 광주를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해 미래 먹 을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12일 ‘양림동 산의 꿈’을 이끌고 있는 김혁중(광주대 총장)초대 이사장을 만나 활동방향과 비전을 들었다.

-단체를 맡게돼 의미가 남다를 것 같 다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 원 발전자문위원, 호남권 광역경제발전 위원 등으로 활동했었는데 이번에 전면 으로 나서게 됐다. ‘양림동산의 꿈’ 산 파역을 맡은 김희재 광주지검장의 남다 른 열정과 지역사랑에 공감한 측면도 있다.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 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림동산의 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광주는 시대정신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도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시 민들이 희생했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 게 기여했다.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 먹 을거리가 부족하고 외지인이 머물 공간 도 제한적이다. 문화자원의 하나인 스 토리텔링 콘텐츠도 부족하다. ‘양림동 산의 꿈’은 광주의 매력과 문화자원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양림동산의 꿈’ 비전은

▲광주문화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양림동, 광주천, 무 등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문화 관광벨트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보려는



문화자원 활용 지역 활성화

대선공약 포함 돼야 실현

성패 여부 시민 성원에 달려

것이다. 그동안 광주의 문화·자연자원 은 각기 따로 개발되거나 조명돼 한계 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문화·자연자 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체화하겠다. 사업이 결실을 맺는다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바뀔 것으로 기대 한다.

-광주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대 선공약으로 제시하나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 예 산지원이 성패의 관건이다. 대통령 후 보의 공약에 사업이 반영돼야 실현될 수 있다. 사업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본다. ‘양림동산의 꿈’은 시민들의 여망 을 결집해 반드시 이 사업을 대선후보 들의 공약에 넣도록 촉구하겠다. ‘양림 동산의 힘’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다. 최

? 양림동산의 꿈은 광주 근대역사의 터전인 양림 동, 무등산, 문화전당을 비롯한 지역 문화·자연자원을 개발·보존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 자원을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도 있 다. 김보균 평동공단 이사장, 서강석 호 남대 총장,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 이사, 양국 국가대표 기보배,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 등 문화·경제·학계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 10만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 셴으면 한다. 현재 ‘대선 시계’가 빨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 련하느라 마음이 바쁘다.

-광주대의 나눔 활동이 두드러진다

▲광주대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생김 배 움터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전 국에서 장학금 지급률이 최고인 이유 다.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기본 책무다. 총장으로서 미려하 지만 소외계층,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대 학상을 구현하려 한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 아야 한다. 편협한 사고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분 들 도 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노사화합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문화 의 매력에 이끌려 기업이 투자하는 도 시가 되야 한다. 무엇보다 후세들에게 풍요롭고 복된 사회를 물려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사진=최현배기자 choi@

윤장현 시장 ‘中 EV100포럼’ 한국 대표로 초청 받았다

광주와 중국이 전기차산업을 매개로 우호교류 관계를 넘어 미래산업의 파트 너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유독 광주에 대해 깊은 신뢰와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중국전기자동차백인회가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를 초청 해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과 향후 발전 방 향을 모색하는 EV100포럼에 윤장현 시 장을 한국 대표로 초청했다”고 12일 밝



기업 대표들과 만나 기술과 정보를 공유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윤 시장은 또 15일 오전 포럼의 한 세

션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발 전과 정책 원탁회의’에서 ‘한국 전기자동 차 산업 현황과 광주의 비전’에 대해 주 제발표를 한다.

EV100포럼 초청자 중 대한민국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중에서는 윤 시장 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포럼 기간 동안 ‘VVIP 30인’으로 선정돼 차량지원 등 최고 수준의 의전과 예우를 받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인공신장실(야간투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입원실(46 bed)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태영21병원
신세계 백화점 백운동
유스퀘어 터미널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